보도시점 2025.1.10.(금) 17:40 배포 2025.1.10.(금) 17:40

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(사회1분야)

- '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'을 주제로 6개부처 합동 업무보고
- 당면 현안에 대응한 부처 핵심 과제 선별, 부처 책임 하 차질없이 추진

교육부·문화체육관광부·보건복지부·환경부·고용노동부·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(금) 14:00, 정부서울청사(9층 대회의실)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**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**을 **점검**하고, **'주요 현안 해법회의'**를 진행하였다.

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**'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'**을 목표로 **민생안정**과 **사회안전망 강화**, **미래대비 개혁과제**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교육부 >

교육부는 올해 **'모두를 위한 맞춤교육'**을 목표로 계획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**'기회의 사다리'**가 되도록 하고, 국민 생활의 안정에 온 힘을 쏟고자 ①**늘봄학교 확산**, ②**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**, ③**의대 정상화와 의대 교육 질 제고**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.

첫째, 지난 해 학부모 만족도가 80%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**늘봄학교** 지원 대상을 **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**한다.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**지역 대학 연계**, **관계부처 협업** 등을 통한 **양질의 프로그램**을 개발하고, **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안정화**와 **교실환경 개선**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 특히, '25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육청과 함께 **늘봄학교 운영 준비**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늘봄학교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
둘째, **라이즈(RISE) 체계**를 **전국에 본격 가동**하여, 라이즈라는 플랫폼 위에서 **지자체, 지역 대학, 지역 산업체** 등이 함께 **'인재양성-취·창업-지역정주' 선순환 체계를 조성**한다. 또한, **글로컬대학 추가 지정**, 시도별 컨설팅 등을 통해 **지역-대학 동반성장 우수모델**을 발굴·확산할 예정이다. 특히, 대학과 지역의 중소·중견기업이 함께 대학의 교육과정 설계-운영부터 기업 채용 단계까지 협력하는 「가칭**인재 파이프라인」 모델**을 확산하여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와 기업 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. 상반기 내에 **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**을 통해 **계약정원제**를 전 분야로 확대하여 **산업계 주도 교육과정 설계·운영**을 지원할 예정이다.

셋째, **올해는 의대 학사를 정상화**하고, **우수 의료인력 양성**을 지원한다. 먼저, 교육부는 **대학과 협력하여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**하도록 독려한다. 또한, 올해 3월부터 최대 7,500명의 2개 학년도 **신입생이 동시에 수업**을 받게 되므로, 6년간의 의학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총력을 다한다. 이를 위해, **의대 교원 채용**과 **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**하여 의학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고, 지역·필수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**의대 교육 혁신**과 **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**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.

< 문화체육관광부 >

문화체육관광부는 **내수경제 활성화**를 위한 **문화·관광·스포츠 소비 지원**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,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 속 **관광·콘텐츠산업 리스크**도 **관리**한다.

첫째, **민생경제 회복**을 위한 **문화·스포츠·관광 소비**를 지원한다. **통합문화이용권 지원**을 늘려('24년 13만원/258만 명 → **'25년 14만원/264만 명**) **취약계층**의 **문화복지**를 **확대**한다. **근로자 휴가경비 지원**을 **설 연휴부터**(1.25~) **사용**할 수 있도록 하고, **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**을 **3월부터 신규 배포**한다. **문화비 소득공제 확대**, **여행 경비 절감**을 위한 **할인 혜택 제공** 등과 함께, 내수 활성화를 위한 **대국민 여행캠페인**, 휴양과 체류 중심 관광 등 **국내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**도 추진한다.

둘째, **방한 관광 시장 조기 안정**을 추진한다. 방한 관광 위축으로 피해 입은 **관광사업자** 대상 **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**를 **1월부터 3월까지**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한편, **해외 각국 관광 안전 메세지 전파**, **안전 여행캠페인** 등 안전 여행 기반을 구축한다. 해외 주요 도시와 박람회에서의 **방한 관광 프로모션**을 **상반기**에 집중적으로 **추진**하고, **코리아그랜드세일** 등 **메가이벤트**도 **연초**에 **개최**하여 방한 시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대응해 나간다.

셋째, **콘텐츠산업 혁신 성장**을 지원한다. **해외투자 유치**를 위한 **1,000억원 규모**의 **'글로벌리그펀드'**를 **신설**하고,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**5,000억원 규모**의 **'K-콘텐츠·미디어 전략 펀드'**를 본격 운용한다. **해외 수출 지원 거점 확장**, 기획부터 해외 수출까지 **문화산업보증 확대**, **중동·중국** 등 **국가별 협력**을 통한 **수출 지원**을 강화한다.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**'인공지능(AI)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(2025~2035)'**을 **상반기**에 **수립**하고, **게임·영상** 등 **핵심 장르 육성**도 지속 지원한다.

< 보건복지부 >

보건복지부는 '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'를 목표로 ①**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**, ②**상생의 연금개혁**, ③**초고령사회 본격 대응**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.

첫째, **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운영** 하에, 가시적인 **의료개혁 성과**를 **창출**하고 **의정대화**를 **회복**하기 위해 **노력**한다. **1월 말 설 명절기간**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**「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」**을 **마련**(1.16)할 계획이다. 설 연휴 전후 2주(1.22~2.5)를 **'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기간'**으로 **지정**하고,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등 **응급의료**에 대한 **보상**도 **강화**할 계획이다.

지역·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**의료개혁**도 **착실히 추진**한다. 특히, 실손보험 구조개혁, 비급여 관리,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시간 누적된 **보건의료체계**의 **구조적 문제**의 **해결 방안**을 담은 **「의료개혁 2·3차 실행방안」**을 **올해 안**에 **마련**(2차 : '25.1분기, 3차 : '25.下)할 계획이다.

의료체계를 **정상화**하고 **의정 갈등**을 **해소**할 수 있도록 **적극 노력**한다. 교육부·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**사직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**를 위해 **조치**하고, 의대정원 등 **의료개혁 과제 논의**를 위해 **의료계**와 **형식**에 **구애받지 않고 소통**할 계획이다.

둘째, 지속가능성·세대 형평·노후소득보장을 위한 **상생의 연금개혁**을 추진한다. **현행 국민연금 제도**를 **유지**할 경우, **2041년 수지적자**가 **발생**하여 **2056년**에는 **기금**이 **모두 소진**될 것으로 **전망**된다. 정부는 **「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」**을 **수립**('23.10)하고, **21년** 만에 **정부 단일 개혁안**을 발표('24.9)하는 등 **연금개혁**을 위해 **적극 노력**하고 있다. **연금개혁**은 **법률**로 **완성**되는 만큼, **국회**에서 **조속히 논의**될 수 있도록 **적극 지원**할 계획이다. 더불어 기금 장기수익률 1%p 이상 제고를 위한 **기준포트폴리오***도 **시행**('25.1)한다.

* ('24) 대체투자의 경우,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(부동산·인프라·사모펀드)만 투자 가능
→ ('25)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(사모대출 등) 투자 가능

셋째, 9년 만의 **합계출산율 반등**을 **견인**하고, **초고령사회 진입 대응**을 **강화**한다. 지난해 우리나라 **출생아 수**는 24만 2,334명으로 **재작년보다 3.1% 증가**하였으나,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%가 넘는 **초고령사회**에 **진입**하였다.

합계출산율 지속 반등을 위해 **출산·양육지원**을 **강화**한다. 지역·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**모든 20~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**를 **지원**하고, **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**(생후5년→+ 이른출산개월)도 **확대**한다.

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**노인정책**을 **본격 추진**한다. **노인일자리**를 **110만 개**까지 **확대**하고, 여가생활을 위한 **경로당 지원**도 **강화**(난방비 年194→200만원, 양곡비 年8→12포대)한다. 또한,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**'통합돌봄 지원체계'**도 **마련**한다.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, **노인연령**에 대한 **사회적 논의**도 준비한다.

< 환경부 >

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 **환경-경제 상생**의 정책으로 **기후대응 컨트롤타워** 역할을 강화해나간다. 특히 **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**를 도출할 수 있는 중점과제에 우선 집중한다.

첫째,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**도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이정표**를 세운다. 우선, **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**(이하 NDC*) 마련을 추진한다.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통해 도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,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상반기 중 **정부안을 마련**하고 이후 산업계,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**국제사회에 제출**할 계획이다. 새로운 감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**배출권 시장**의 **금융시장 연계** 및 **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**를 추진하고, 중소기업 대상 **녹색투자** 규모도 **대폭 확대**('24년 1.5조원 → '25년 3.5조원)한다.

*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: 파리협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제출

아울러,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로서 **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**를 **2026년 2월**까지 차질없이 추진한다. 전문가 씽크탱크를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(안)을 도출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연내 '**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**'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

둘째, 홍수 피해, 생활물가 상승 등 사회·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**기후위기에 대응한 범부처 민생대책**을 새로 짠다.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, 기후보험 확대, 취약계층 지원 등 **패키지 대책**을 추진할 계획이다.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'**기후적응특별법**' 제정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.

또한, 극한 홍수·가뭄과 신규 물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**기후대응댐 건설**을 차질없이 추진한다.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은 **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에 착수**하고 나머지 지역은 **소통·설득**하되 **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**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. 20년만에 2배 늘린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예산(당초 300~400억원 → 600~800억원)을 활용해 **신규 댐 주변 복지·문화시설 확충**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추진한다.

셋째, 장기간 이어져 온 **환경갈등의 해결**을 위해 **근본적 대책**을 마련한다.

우선,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관련 정부-피해자-기업 등 협의체를 3월부터 운영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**사회적 합의**를 추진하고 종국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「**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**」을 개정한다.

아울러, **일회용컵 보증금제**를 확대 시행한다. 현장 수용성, 사회적 비용, 지역사회 의지 등을 고려하여 **유연하게 시행**하고 **중심상권과 대형시설로 확산**될 수 있도록 행정·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.

< 고용노동부 >

고용노동부는 **당면한 일자리 현안**에 **신속**히 **대응**하고 **미래세대**를 위한 **따뜻한 노동현장**을 만들기 위해 ①**노사법치**로 **노동현장 불안 해소**, ②서민생활을 위협하는 **임금체불 근절**, ③**'쉬었음' 청년**의 빠른 **노동시장 진입 촉진**을 **3대 핵심 프로젝트**로 추진한다.

먼저, **노동개혁**의 **핵심 성과**인 **노사법치**를 **흔들림 없이 추진**한다. **대내외 불확실성** 속에서도 **법과 원칙**에 따라 **노동현장 불안요인**에 **적극 대응**할 계획이다. **기초노동질서 준수** 여부를 집중적으로 **감독**하고 **컨설팅**을 통해 **사업장**의 **준법역량**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 또한 **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**을 쉽게 알 수 있도록 **'AI 노동상담사' 서비스를 확대 제공**한다.

임금체불 근절에도 집중한다. **설 명절**을 앞두고 1월 한 달간 **집중 청산 지도**를 실시한다. **간이대지급금**은 **처리기간**을 **절반**으로 **단축**(14일→7일)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. 임금체불 등으로 **생계**가 **곤란**한 근로자에게는 **생활안정 융자**를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. **상습체불**에 대해서는 **감독, 강제수사**를 **강화**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. 이와 함께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,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**근로기준법**이 10월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**하위법령 정비**를 **상반기**에 완료한다.

퇴직연금의 점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. 전체 **체불임금 중 퇴직금**이 **약 40%**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, 퇴직연금 의무화로 **임금체불을 예방**하고 **근로자 노후소득 보장**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전문가·현장의견을 토대로 **관련 법 개정을 추진**하고 **관계부처**와 함께 **기업 지원 방안**도 **마련**할 예정이다.

미래의 주역인 **청년**에 대한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. 특히 **'쉬었음' 청년 지원**을 **체계화**하여 이들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. **교육부**와 **협력**하여 졸업 후 **미취업 청년 5만명**을 **발굴**하고 심리지원, **일경험 기회 확대**(4.8→5.8만명), 취업 연계 등 **찾아가는 고용서비스**(청년고용올케어 서비스)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. **3월**에는 **산업부, 중기부** 등 경제부처와 **협력**하여 **'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'를 개최**하고 매월 지역별 채용행사를 열어 청년과 우수기업의 **일자리 미스매치**도 **해소**한다.

< 여성가족부 >

여성가족부는 **돌봄과 양육 지원**으로 **저출생 극복에 기여**하고, **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**를 만들기 위해 **3대 핵심 프로젝트**를 추진한다.

첫째,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(7월~)**한다.** 선지급제의 **신청 및 지급이 원활**하게 이루어지고 **부정수급을 방지**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**회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** 및 **시스템 구축** 등을 추진한다.

둘째, 양질의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·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.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**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를 추진하고**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**등·하원시간대 서비스를 확대**하기 위하여 **복지부 노인일자리와 협업**(3월~)한다. 더불어, 아이돌보미 추가채용을 위해 **아이돌봄센터의 복수지정 확대**(1월~) 및 **아이돌보미 처우**도 **지속 개선**('25년 4.7% 인상, 영아돌봄 수당(1,500원/시간당) 신설)해 나갈 계획이다.

셋째, '24.11월 발표된 「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」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. 전국 **피해자지원기관**의 상담전화를 **'1366'으로 일원화**(4월~)하고, 지역 **피해자지원기관**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면상담, 치유회복 등 **원스톱 밀착 서비스**를 제공한다. 또한, 디지털 성범죄 **예방교육 콘텐츠**(5종)를 개발·보급하고, **아동·청소년·대학생**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**피해예방을 위해 노력**하고, **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**도 **분기별로 운영**할 계획이다.

< 권한대행 당부사항 >

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, **사회분야 여러 부처간 협력**을 위해 **부처간 협업을 강화**하여 사회 정책들이 조화롭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을 당부하였다. 특히,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·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**각 부처 장관**들이 **오늘 논의한 핵심과제**에 대해 **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**을 통해 **추진상황 및 향후계획** 등을 **설명**할 것을 주문하였다.

아울러, **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**에 '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**의료개혁 논의**와 **의료정상화**를 위한 **대화**에 **참여**할 것을 제안하였다. **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**에는 **의료개혁 추진과정**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**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**으로 **설득**하고 **협의**할 것을 **당부**하였다.

또한, **탄소중립, 저출산 문제** 등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**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,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** 논의를 **활성화**하고, 필요시 **직접 주재**하겠다고 하였다.

금번 현안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**국민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, 흔들림없이 개혁과제를 추진**할 수 있도록 **정부의 역량을 결집**하고 **업무에 매진할 것**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였다.

<기재부>	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박언영	044-215-2530
		담당자	사무관	김형은	044-215-2533
	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시동	044-215-8510
		담당자	서기관	김요균	044-215-8511
<교육부>	교육부 기획담당관	책임자	과 장	신광수	044-203-6026
		담당자	서기관	황소정	044-203-6029
		담당자	사무관	유가희	044-203-6051
<문화체육관광부>	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미라	044-203-2211
		담당자	사무관	최원석	044-203-2212
<보건복지부>	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오상윤	044-202-2310
		담당자	사무관	정다솜	044-202-2303
<환경부>	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최민지	044-201-6330
		담당자	서기관	정윤화	044-201-6331
<고용노동부>	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엄대섭	044-202-7026
		담당자	서기관	윤병민	044-202-7027
<여성가족부>	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신경식	02-2100-6061
		담당자	서기관	신내은	02-2100-6064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